

미국인 56% “이미 경기침체”



미국인의 절반 이상은 현재 미국이 경기침체에 빠져 있다고 본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코노미스트와 여론조사기관 유고브는 전날 지난 11~14일 성인 1천500명을 상대로 조사(오차범위는 ±3.1%포인트)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응답자의 56%가 미국이 현재 경기침체에 빠져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22%는 그렇지 않다고, 나머지 22%는 확신하지 못한다고 각각 말했다.

연방준비제도(Fed)는 15일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했다.

수요를 다잡아 물가를 안정시키겠다는 발등의 불을 끄려는 조치이지만, 금리가 급격히 오르면서 경기침체와 정리하고 등 부작용 우려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미국은 코로나19 대유행 여파로 인한 공급망 붕괴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장기화에 따라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이 치솟으며 40여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다. 높은 물가상승에 이어 물가를 잡으려는 연준의 과격적인 조치가 잇따르면서 조만간 불황이 닥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응답자가 어느 정당을 지지하느냐에 따라 '현재 미국이 경기침체에 빠졌다고 생각한다'에 대한 답변이 크게 갈리며 대조를 이뤘다. 야당인 공화당 지지자의 70%는 미국이 경기침체를 겪는 중이라고 답했고, 8%만이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에 민주당 지지자 중에는 응답자의 45%가 경기침체에 빠졌다고 답했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무당파 응답자는 56%가 경기침체 상황에 동의했다.

사진=shutterstock

엘로스톤 댁친 기록적 홍수

세계 최초의 국립공원으로 유명한 엘로스톤 국립공원이 대규모 홍수에 폐쇄됐다.

14일 '서울신문'이 CNN을 인용해 전한 바에 엘로스톤 국립공원은 전날 전례 없는 수준의 폭우와 홍수로 인해 모든 입구가 봉쇄됐다. 대규모 홍수는 산사태를 유발했고, 국립공원 내 도로가 유실되거나 정전되는 등의 피해가 잇따랐다.

공원 북쪽에 있는 다리는 홍수로 강의 수위가 높아지면서 무너져 내렸고, 국립공원과 맞닿아있는 몬태나주 가디너에서는 주택 한 채가 통째로 떠밀려 내려가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다.

엘로스톤 국립공원 측은 SNS를 통해 "공원 재개장은 홍수로 범람한 강물이 빠지고 피해 규모를 확인한 뒤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엘로스톤 국립공원의 입구가 모두 폐쇄된 것은 1988년 대규모 산불 이후 34년 만이다.

로이터에 따르면 엘로스톤 국립공원 일대를 강타한 홍수는 지난 3일 동안 이어진 이례적인 폭염으로 공원의 높은 고도에 쌓여 있던 눈이 녹으면서 발생했다. 갑자기 높아진 기온으로 눈이 빠르게 녹



▲ 엘로스톤 국립공원과 맞닿아있는 몬태나주의 한 주택이 홍수에 통째로 떠밀려 내려가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사진=weather.com

아 내렸고, 눈이 녹아 생긴 물이 엘로스톤강 등에 더해졌다.

여기에 집중호우까지 더해지면서 기록적인 홍수로 이어졌다. 공원 측은 현재 북쪽 지역의 피해가 가장 크며, 공원 남쪽 지역의 여러 도로가 침수될 위기에 처했다고 전했다.

'성 평등 진전' 인식 남녀 차이 커

미국이 최근 50년간 양성 평등에서 얼마나 진전을 이뤘는지를 놓고 남성, 여성의 인식이 크게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AP 통신이 이날 공개한 설문 조사 결과, 1972년 이후 여성을 위한 동등한 처우 확보에 '대단히 많은' 진전이 있었다는 응답자는 49%로 나타났다. '어느 정도' 진전했다는 응답은 41%, '거의 진전이 없었다'는 응답은 10%로 각각 조사됐다.

1972년은 교육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 '타이틀 나인' (Title IX) 법이 제정된 해다.

진전이 어느 정도인지를 놓고는 성별에 따라 인식차가 컸다.

'대단히 많은' 진전을 이뤘다고 보는 비율이 남성

중에서는 61%에 달했으나 여성 중에서는 37%에 그쳤다. 대신 여성 중에서는 '어느 정도' 진전했다고 답한 비율이 50%로 절반에 달했고, 거의 진전되지 않았다는 답은 13%였다.

남성 중에서는 '어느 정도' 진전했다는 답이 31%, 거의 진전되지 않았다는 답이 8%로 각각 나타났다.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도 응답이 갈렸다. 공화당 지지자 중에서는 '대단히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답한 비율이 65%에 달했으나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는 39%에 머물렀다.

이번 설문 조사는 시카고대 여론연구센터(NORC), 미 국립여성역사박물관이 공동으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 성인 1천1명을 대상으로 했다.

날말퍼즐 정답

1	돌	부	리		2	소	강	상	3	태			
	발			4	짚	통				양			
	상		5	소	질		6	세		초			
7	황	8	소		방		9	공	10	이			
		11	음	12	지		13	낮		14	웃	15	돈
16	팔			정		17	가	세					키
	빙				18	차	림						호
19	수	수	방	관				20	나	이			테

숨은그림찾기 정답

